

2017-02-19

>> 구문론 > 복문 > 종속절 중:

*** 시제 일치**

1. 주절의 직설법 동사는 종속절의 접속법 동사의 시제를 지배한다.(주절 동사를 기준으로 종속절의 동시, 선행, 후행의 시제 표현이 결정된다.)

* 주절에 직설법 현재, 미래 등은 종속절과의 시제 관계 파악이 수월하다. 그러나:

1) 주절에 직설법[또한 접속법] 미완료과거, 완료, 과거완료 등이 있는 경우,

a) 종속절의 접속법 미완료과거는 동시 행위

b) 종속절의 접속법 과거완료는 선행 행위

*** ut-절 정리(부사 ut 아님)****I. 명사절**

quod(~라는 사실)과 함께 명사절을 만들어 주어나 목적어/보충어로 사용된다. 주절의 동사가 욕구, 작용, 허락, 의사표시 등을 표현할 때, ut-절은 접속법 동사를 사용하여 그 대상을 표현한다. 시제 일치 적용

Dicam(fut.) quod Justitia Lee compedivit. (ind. pf.) 구속되었다고(사실).

Dicam(fut.) ut Justitia Lee compediverit. (coni. pf.) 구속되리라고(바람)

II. 부사절

직설법(ind.)과 함께:

1. (시간적) a) 하자마자. [대화체에서 대개는 pf.를 사용] 'ut primum'으로 강조. 반복적 행위를 표현 할 때는 pqpf를 사용.

b) ~이래로

II. 접속법(coni.)과 함께:

1. 목적 [ut finalis]: ~ 하기 위하여, ~ 하도록.

Edimus, ut vivamus.

(부정문에는 접속사 ne 가 쓰인다: ~ 하지 않도록)

timeo ut(=ne non): ~하지 않을까 두렵다.

2. 결과 [ut consecutivum]: (so that) ~ 해서, [그 결과] ~하다.

Mons altissimus impendebat, ut perpauci prohibere possent.

산이 대단히 높이 솟아있었고(ind. impf.), 그 결과 적은 사람들이 방어할 수 있었다(coni. impf.)

3. 양보 [ut concessivum] ~이기는 하지만